

중남미 경제, 국가간 경제실적 양극화 심화

□ 2가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남미 경제

- 2002년 중남미 경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2001년 0.6%에도 미치지 못하는 0.5%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. 이에 따라 중남미 경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**소득분배 왜곡현상이 심화**되고 있음.
- UN에 따르면 상위 10%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40%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30%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10%를 차지하는 수준임.
- 한편 유럽과 북미권 경제가 통합노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중남미는 **국가간 경제실적의 차이**로 통합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브라질, 칠레, 멕시코 등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,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등은 정치적 문제로 개혁이 지연되고 있음. 이러한 경제적 성과의 차이는 Mercosur 등 지역경제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.

□ 경제성과 차이의 긍정적 측면-제한적 감염효과

- 중남미 경제에서 국가별 경제성과의 차이(Economic Segmentation)는 소득분배의 불균형만큼이나 두드러진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는데, 이러한 과정에서 중남미 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긍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.
- 과거 1980년 대 와 1990년 대 외채위기 발생 시 역내 국가 모두가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베네수엘라 및 아르헨티나 위기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임(Decoupling).
- 1994년 멕시코 폐소화의 평가절하는 4,600마일이나 떨어진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을 3%나 감소시켰고, 1999년 브라질 헤알화의 평가절하는 미국 달러화에 자국통화를 연동시키고 있던 아르헨티나의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킨바 있음.

- 그러나 금번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지배적 관측임.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자유변동환율제 이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우루과이 정도임.

□ 성장의 전제조건 및 국별 경제전망

- 2003년 중남미 경제는 3.8%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.
 - 첫째,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가 회복되어야 하며,
 - 둘째, 브라질 대선결과 좌파정권이 출현, 외국인 투자자를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,
 - 셋째, 베네수엘라 및 아르헨티나의 경제침체가 진정되어야 함.
- 2002년 중남미 경제는 전체적으로 브라질, 칠레, 멕시코,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경제우등생과 베네수엘라, 아르헨티나 등의 경제성과가 종합되어 1% 미만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음. 그러나 현재의 인구증가율을 고려할 때 빈곤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4% 내지 5%의 성장이 필요함.
- 현재 중남미 경제는 성장의 지속이냐? 과거로의 후퇴냐? 갈림길에 서있으며, 향후 과제는 과거 알루미늄 공장의 민영화와 같은 단순과제보다는 **조세계계의 개혁**, 병원의 건설 등과 같은 작업이 될 것임.
-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중남미 각국 정부는 불평등 심화의 부산물로 폭력적 시위와 재정지출 압박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. 이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식이 그 어느때보다 주목되고 있음.
- 향후 중남미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 **공통적 위험요인**은 중남미 각국이 1차산품의 수출 및 외부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음.

- 그러나 각국은 산업구조의 다변화, 지역경제 협정 및 양자간 협정체결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해가고 있으며, 멕시코, 칠레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, 브라질의 경우 미주자유무역협정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국의 견제가 예상됨.
- 기타 페루와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시장지향적 개혁정책의 추구, 자유무역지 설치, 관광산업의 회복 등으로 양호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.

문의처 : 책임조사역 배상욱 subae@koreaexim.go.kr

연구원 최성규 ppio93@koreaexim.go.kr